

디자인 고급화 한 기아차... 탄소섬유로 갈아입은 벤츠

'서울 모터쇼' 콘셉트카로 본 미래 신기술

기아차, 모하비 마스터피스·SP 시그니처 첫 공개
르노삼성차 'XM3 인스파이어' 쇼카 전시
벤츠 2인 최초 '비전 EQ 실버 애로우' 선보여

모터쇼의 히어로로 미래 자동차를 만나 볼 수 있는 콘셉트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파격의 디자인과 미래 신기술이 집대성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서울모터쇼'에서도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들은 자사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과 독창적 기술력을 과시하는 콘셉트카를 대거 출품,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담하고 존재감 있는 스타일링, 기아차

올해 서울모터쇼에서 가장 많은 콘셉트카를 출품한 브랜드는 기아자동차다.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와 SUV 콘셉트카 'SP 시그니처'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모하비 마스터피스는 정통 SUV 스타일의 헤리티지는 계승하는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로 완성된 대담하고 존재감 있는 스타일링이 특징이다. 특히 플래그십 SUV로서 프리미엄 가치를 시각화하는데 집중했으며 한 차원 높은 디자인적 완성도를 구현했다.

기아차의 또 하나의 기대작 소형 SUV

콘셉트카 'SP 시그니처'는 하이클래스 소형 SUV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제시했다.

지난해 델리 모터쇼를 통해 기아자동차가 최초로 공개한 콘셉트카 'SP'를 하이클래스 소형 SUV에 걸맞게 디자인을 더욱 정교화하고 고급화한 모델이다.

SP 시그니처 디자인은 대담한 통후드 스타일과 강인한 범퍼디자인을 통해 완성한 대범한 전면부, 볼륨감이 강조된 면처리와 스포티한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성이 강조된 측면부, 리어컴비네이션 램프와 연결되는 테일게이트 가시성을 적용해 고급감이 한층 강조된 후면부로 이루어졌다.

르노삼성차는 'XM3 인스파이어' 쇼카를 전시했다. 르노삼성차가 내년 1분기 부산공장에서 생산할 양산형 크로스오버 차량의 쇼카 버전이다.

XM3 인스파이어 쇼카는 미래지향적 스타일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날렵한 차체에 한국 취향을 반영한 디테일과 독창성이 가득하다. 르노삼성 고유 디자인 콘셉트를 선명하게 담아낸 LED 램프 등 특유의 스타일을 갖췄다.

◇탄소섬유로 갈아입은 '벤츠'

메르세데스-벤츠는 아시아 최초로 순수 전기 콘셉트카인 '비전 EQ 실버 애로우'를 선보였다. 차체를 탄소섬유로 갈아입었고, 디자인은 늘씬한 유선형 실루엣을 자랑한다.

비전 EQ 실버 애로우는 메르세데스-벤츠 모터스포츠가 125년 동안 이룩한 혁신의 역사를 증명하는 모델이다. 1938년 시속 432.7km라는 신기록과 함께 등장한 'W 125 실버 애로우'를 모티브로 삼았다. 벤츠 기술 역량과 미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길이는 5.3m, 높이 1m에 이르는 유선형의 실루엣을 갖춘 차체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졌다. 차량 아래에는 약 80kWh 용량의 슬림한 충전식 배터리가 탑재됐다. 1회 충전하면 최대 400km를 달릴 수 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1894년 레이싱카 개발로 시작된 벤츠 모터스포츠 역사는 수많은 신기술과 함께 혁신을 거듭해 왔다"면서 "벤츠의 혁신 기술 역시 모터스포츠 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BMW는 '미래와 연결된다'를 테마로 콘셉트카 'BMW i 비전 다이내믹스'와 'BMW 콘셉트 M8 그란 쿠페'를 공개하며 향후 나아갈 미래의 모빌리티, 디자인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i 비전 다이내믹스는 최고출력 374마력에,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19 서울모터쇼에서 기아차 SUV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다.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2019 서울모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벤츠 콘셉트카 '비전 EQ 실버 애로우'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효성 등 13개사 서울모터쇼 '수소 홍보관' 운영

효성·수소알라이언스·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기업이 서울모터쇼에서 '수소 에너지 특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제1전시장 '서스테이너블 월드'에 위치한 홍보관은 올해 서울모터쇼의 주제인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 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에 따라 국내 수소산업의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일반 대중과 해외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수소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수소 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홍보관에는 효성을 비롯한 수소알라이언스, G필로스, 에이치엔파워, 소나무, 일진복합소재, MS이엔지, 프로파워, 하이리

움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 증연구센터,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경진티알엘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효성은 수소충전소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G필로스는 재생에너지 미활용전력 수소화(P2G) 시스템, 에이치엔파워·소나무는 3kW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용 LNG개질(LNG로 수소 생산) 기술, 일진복합소재는 수소차용 저장용기 기술, MS이엔지는 MS다쓰노의 수소디스펜서(저장된 수소를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기계), 프로파워는 지게차용 수소 충전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수소알라이언스는 "2040년 수소 관련 산업이 43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2040년 승용차 275만대, 택시 8만대,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 수소충전소 1200곳,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 발전용 연료전지 15GW 시대가 될 것"이



서울모터쇼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

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서스테이너블 월드에서 수소전기버스 시승행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제2전시장에서는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체험하고, 수소 에너지로 구현되는 미래 수소 사회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 '넥

소 빌리지(NEXO Village)'를 운영하고 있다. '넥소 빌리지'에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과정과 넥소에서 배출한 깨끗한 물을 활용해 가꾼 친환경 정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 스포티지 해외 판매 1위 등극

전년비 14.1% 증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3세대 쏘울이 지난달 출시 이후 처음으로 판매량 1000대를 넘어섰다. 스포티지는 전년동월 대비 14.1% 증가한 4만3373대가 팔리며, 해외 최대판매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3월 국내 4만4233대, 해외 19만8384대 등 총 24만2617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국내 판매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8.9% 감소했다. 그러나 해외 판매가 같은 기간 2.2%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는 지난해 3월 기록한 24만2608대에 근접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해외 판매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가 선봉에 섰다. 지난 2월 3만7630대에 이어 3월 4만3373대를 해외에서 판매, 해외 판매왕에 올랐다.

리오(프라이드)가 2만4358대, K3(포르테)가 1만7475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차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차량은 카니발(5718대)로, 지난해 4월부터 12개월 연속 기아차 월간 국내판매 1위를 기록했다.

승용 모델 가운데서는 모닝이 4720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K3(3770대)와 K5(3466대), 레이(3202대) 등을 합해 총 1만9251대(전년비 12.6% ↓)의 승용차량이 국내에서 소비됐다.

레저용 차량(RV)은 쏘렌토 5626대, 니로 2771대, 스포티지 2673대 등 총 1만9093대(8.5% ↓)가 국내에서 판매됐다. 특히, 지난 1월 출시된 3세대 쏘울은 출시 이후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선 1166대(전기차 포함)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쏘울이 1000대 판매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이후 88개월만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